

다니엘의 책 - 번호 123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예언적 의미를 밝히다

Jeff Pippenger

2024-03-08

다니엘서 11장 4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심오한 절들 가운데 하나이며, 다니엘서 8장 14절도 마찬가지다. 40절은 히데겔 강으로 상징되며, 올라이 강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상징한다.

40절은 "그리고 끝의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며, 따라서 그 절이 시작되는 시점이 1798년임을 분명히 지목한다. 그 절을 이루는 51개의 단어는 1989년에, 그것들이 당시 소련의 붕괴를 지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때 봉인이 풀렸다. 그 절 속의 51개의 단어는 1798년의 끝의 때와 이어 1989년의 또 다른 끝의 때를 모두 나타낸다. 알파와 오메가께서는 보고 듣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해 그 절에 그분의 서명을 남기셨다.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운동의 끝의 때가 그 한 절에 나타나 있다.

다음 절은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법령 때, 북방 왕으로 대표되는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으로 대표되는 미국을 정복하는 때를 지적한다. 그러므로 40절의 말씀은 시작을 1798년의 끝의 때로, 끝을 1989년의 끝의 때로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40절에 표상된 예언적 역사는 북방 왕이 영화로운 땅을 정복하는 41절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이는 1989년 소련 붕괴로부터 41절에 언급된 곧 임할 일요일법령까지의 역사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부터 곧 임할 일요일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역사를 대표한다는 뜻이다. 그 역사에는 2001년 9월 11일이 포함되며, 이어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까지 계속된다.

그 절이 처음으로 봉인이 풀렸을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이 진리에 맞서 제기되었다. "Pippenger의 주장, 즉 그 절이 1798년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성경의 절이 그렇게 긴 기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절 안에 담길 수 있는 기간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 바로 그 동일한 역사를, 그것도 한 절 안에서, 지목하고 있음을 떠올렸다. 땅의 짐승의 역사는 1798년에 시작되었고, 땅의 짐승이 용같이 말한다는 것은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 법령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하도록 강요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며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 전쟁을 벌일 마지막 권세인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시대의 징조, 1899년 11월 1일.

만약 누군가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 40절은 1798년의 역사를 다루며 41절로 이어지고, 41절에서 일요일 법령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한 구절과는 달리, 40절은 실제로 조금 더 짧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다음 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가 한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에 있는 '같은 예언의 계통'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서 다루어진다고 알려주며, '줄 위에 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40절 위에 쉽게 정확히 포개집니다.

'줄 위에 줄'의 원칙을 적용하면, 40절에서 '전차, 배, 기병'으로 표현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미국)이 1798년에는 두 뿔을 가진 어린양 같은 짐승이었다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으로 바뀐다는 것과, 또한 그 어린양 같은 짐승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40절은 또한 두로의 음녀가 잇히는 상징적 칠십 년을 나타내는데, 그 상징적 칠십 년은 한 왕의 햇수와 같고, 왕은 곧 한 왕국이다. 40절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서술에 비추어 볼 때, 이사야 23장의 상징적 칠십 년 동안 통치하는 성경 예언의 왕국은 힘의 두 뿔을 가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공화주의와 개신교를 상징하는 힘의 두 뿔로 시작하지만, 40절의 역사가 41절에서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그 두 예언적 힘은 '배들'(경제력)과 '병거와 마병'(군사력)으로 식별된다.

이사야 23장의 상징적인 칠십 년 동안, 40절에서는 북방의 왕으로 나오는 두로의 창녀는 잊혀진다. 그러나 그 상징적 칠십 년의 끝에 그녀는 다시 땅의 왕들과 음행할 것이니, 이는 소련 붕괴로 이어지던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학자들이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비밀 동맹을 맺었다고 확인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같다. 1989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레이건은 이미 죄의 사람과 비밀스럽고 불법적인 관계를 시작했고,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의 악사들이 잊혀진 창녀가 부르기 시작하던 곡조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존 폴 2세의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사역은 "온 세상"이 "그 짐승을 경이롭게 여기며 뒤따르게" 만든 "노래와 춤"의 시작이었다.

40절은 또한 라오디게아 재림운동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역사는 1798년에 사데로서 시작되었고, 사데에 있던 이들이 봉인이 풀린 빛을 받아들였으며, 그리하여 사데에서 빌라델비아 운동이 나왔다. 빌라델비아 운동이 1856년의 빛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1863년에 운동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곧 임할 일요일법을 말하는 41절에서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되어 있다. 40절은 미국의 역사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재림운동의 역사도 나타낸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은 그 기초와 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한 빛을 받았고, 미국 정부는 그 기초와 힘으로서 미국 헌법의 신성한 빛을 받았다. 둘 다 1798년에 예언적으로 뿔로 시작했으며, 상징적인 칠십 년의 끝에 이르면 배교한 공화주의의 뿔과 배교한 개신교의 뿔이 하나의 뿔로 합쳐져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40절의 두 뿔은 정부와 선택된 교회로서, 함께 진행하는 두 개의 예언의 줄기를 나타낸다. 이는 그들이 하나의 짐승 위에 있는 두 뿔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짐승이 어디로 가든 두 뿔도 함께 가며, 동일한 예언적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한다. 개신교의 뿔은 라오디게아와 빌라델비아로 대표되는 이중의 예언적 성격을 지닌다. 공화주의의 뿔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정당들로 대표되는 이중의 예언적 성격을 지닌다. 다니엘서 8장에 따르면, 각 뿔의 이중적 성격 가운데 둘째 것은 나중에 올라와 더 높이 일어난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강 앞에 두 뿔이 있는 숫양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두 뿔은 다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높았으며, 더 높은 것이 나중에 낮더라. 다니엘 8:3

각 뿔의 이중적 특성은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드러나며, 이를 공화주의의 뿔에 적용하면 자유주의(노예제 지지, 민주주의, 각성주의, 글로벌리즘)와 보수주의(반노예제, 입헌 공화국, 전통주의자들, MAGA)에 해당한다. 개신교의 뿔의 이중적 특성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뿔을 둘로 나누는 이중 상징 사이에 완전한 병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자유주의도 보수적 MAGA주의도 일요일 법 문제에서 옳은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십자가로 예표된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의 때에는 라오디게아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고, 빌라델비아의 뿔이 기치로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두 뿔의 이중적 본성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신학적 논쟁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보낸 사자(바울)도 본래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

늦은 비의 방법론, 곧 줄에 줄을 더하는 방식은 40절에 적용될 때 큰 빛을 드러낸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18장까지는 모두 40절과 일치한다. 이사야 23장의 두로의 창녀에 대한 증언도 그 절과 일치한다. 물론 40절 위에 겹쳐 놓아야 할 다른 본문들도 여럿 있지만, 아마 40절에 대한 줄에 줄을 더하는 적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40절 그 자체일 것이다.

40절에서는 1798년의 끝의 때와 1989년의 끝의 때가 모두 제시된다. 이는 예언을 연구하는 이로 하여금 1798년의 끝의 때를 1989년의 끝의 때 위에 겹쳐 배치하도록 이끈다. 그렇게 하면, 40절의 역사는 각각 1798년에 시작해 41절의 곧 임할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선을 형성한다. 1798년에 시작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세 백성의 내적 메시지를, 1989년에 시작하는 선은 바로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세 백성의 외적 메시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40절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일곱 인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내적·외적 예언적 관계의 상징을 그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예언적 현상은 51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 한 절 안에 표현되어 있다!

밀러파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의 내적·외적 메시지를 인정했지만, 일곱 나팔이 또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나타내는 역사에 속한 요소로서 세 번째 진리의 축을 대표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밀러의 말대로, 그 나팔들은 로마에 내려진 '특별한 심판들'이었다. 밀러파는 일곱 나팔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교회의 역사와 그와 병행하는 일곱 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다.

40절에는 2001년 9월 11일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40절에서는 일곱 나팔의 예언적 흐름도 일치한다. 첫째 천사는 1844년에 심판이 개시됨을 선포하기 위해 1798년에 왔다. 그 심판은 조사 심판과 집행 심판으로 나뉜다. 40절의 역사는 조사 심판의 역사이며, 미가엘이 일어나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의 41절 이후의 역사는 집행 심판의 역사이다.

미국이 용처럼 말할 때 집행 심판이 시작된다.

"그 상징의 어린양 같은 뿔과 용의 음성은 그렇게 대표된 나라의 공언과 실제 사이에 놀라운 모순을 가리킨다. 그 나라의 '말함'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를 뜻한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나라는 자기 정책의 기초로 내세웠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원칙들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 나라가 '용 같이 말하며'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것이라는 예언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으로 대표된 나라들에서 드러났던 불관용과 박해의 정신이 발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한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짐승이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진술은, 교황권에 대한 경의의 행위가 되는 어떤 준수를 강제로 시행하는 데 이 나라의 권세가 행사될 것임을 가리킨다." 대쟁투, 443쪽.

미국이 '말하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집행할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은 바벨론에서 남녀를 불러내며 '말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않도록 그에게서 나오라. 그의 죄들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가 너희에게 갚아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갑절로 갚아 주라. 그가 채운 그 잔에 그에게 갑절로 채워 주라. 요한계시록 18:4-6.

41절에 이르면 미국이 말하며,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말할 때 현대 바벨론의 삼중 환경 속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 불러내심을 받는다. 그때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은 41절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로 나타난다. 그 절에서, 현대 바벨론의 삼중 상징으로 표현된 자들은 북방 왕(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난다. 히브리어 단어 'escape'는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다를 뜻하며, 그 내재적 의미는 그 도피가 도피 이전에 그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던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가 무너지겠으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으뜸 되는 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는 또한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뻗칠 것이며, 애굽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니엘서 11:41, 42.

42절에서 교황권(북방 왕)은 유엔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점령함으로써 세 번째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하는데, 이는 헤롯의 생일, 곧 그가 헤로디아(교황권)의 딸인 살로메(미국)의 기만적인 춤에 굴복한 때로 예표된다. 이것은 유엔(요한계시록 17장의 "열왕")이 한 시간 동안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하는 때를 가리킨다. 그 한 시간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이며, 바벨론의 음녀가 심판받는 "한 시간"이다. 42절에서 이집트(유엔)는 "피하지 못한다."

42절에서 "escape"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41절의 히브리어 단어와 다르다. 42절에서 "escape"는 "구원을 찾지 못함"을 뜻하지만, 41절은 곧 닥칠 일요일법 이전에 교황권과 손을 잡고 있던 자들이 마치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때를 지적하고 있다. 일요일법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현대 바벨론과 교체하는 자들이 일요일이 하나님의 예배일이라는 사탄적 사상을 받아들여 왔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실제로 그렇다고 믿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고, 단지 받아들이는 것은 손에 표를 받는 것이다.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미국과 유엔이 로마의 음녀, 곧 북방 왕인 교황권과 손을 잡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태양의 날이라는 사탄적인 사상을 거부한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는 데 가장 앞장설 것이다; 그들은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데 있어 로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대논쟁, 588.

우리가 40절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 가면서,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구조를 시간을 들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북방의 왕, 곧 현대 로마는 세상의 왕좌에 자리 잡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한다. 이교 로마가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했고 교황 로마도 그랬던 것처럼, 현대 로마는 40절에서 남방의 왕(구 소련)을 정복하고, 41절에서 영화로운 땅(미국)을 정복하며, 42절과 43절에서 이집트(유엔)를 정복한다.

그러나 앞서 화이트 자매의 인용이 지적하듯이, 미국은 교황권과 유엔과 동시에 손을 잡는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 이루어지지만, 다니엘서 11장 41절부터 43절까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복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제시된 그 순서는 사건의 흐름을 나타낼 뿐이며, 이 모든 것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에 이루어진다.

그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말하는데', 미국이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이다. 하나님은 사탄이 말하는 그곳과 그때에 말씀하신다. 44절에서 동방과 북방으로부터 온 소식이 북방 왕을 근심하게 하고 최후의 교황권 유혈 학살이 시작된다. 44절은 42절과 43절과 마찬가지로 41절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가 그의 다른 양 떼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이다.

그분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 그분의 심판의 도구이자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징벌임을 밝히는 메시지다. 이슬람은 "동방의 소식"으로, 교황권(거짓된 북방 왕)은 "북방의 소식"으로 상징된다. 다니엘 11장 40절은 조사 심판을 가리키고, 41절부터 45절은 집행 심판을 가리킨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11장 40절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뉴욕시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나는 하늘을 향해 층층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고 보증되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더 높이, 더 높이 치솟았고, 그 안에는 가장 값비싼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들의 소유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자기들의 재원을 투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로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웅장한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우주의 통치자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계획과 궁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곧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를 망각했다.'

이러한 우뚝 솟은 건물들이 세워져 갈수록, 소유주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이웃들의 시기를 불려일으키는 데 쓸 돈이 있다는 사실에 야심에 찬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돈의 상당 부분은 가혹한 수탈과 가난한 이들을 짓눌러 착취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그들은 하늘에서는 모든 사업 거래가 기록되며, 모든 불의한 거래와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기와 오만 속에서 주께서 더 이상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화재 경보였다. 사람들은 우뚝 솟아 있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건물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든 것처럼 모조리 타 버렸다. 소방차는 파괴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장비를 가동할 수 없었다.

나는 주님의 때가 오고도 교만하고 야심찬 인간들의 마음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하시기에 강하던 그 손이 멸하시기에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지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품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보응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건물들을 멸망에서 보존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의 현 상태를 낳은 근본 원인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육자와 정치가들 가운데서도 많지 않다. 국정을 맡은 이들은 도덕적 타락, 빈곤과 빈민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 운영을 더 안전한 기반 위에 올려놓으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강탈과 착취로 막대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말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모았다. 보라, 너희 밭을 베어 추수한 일꾼들의 삯을 너희가 속여 떼어 둔 그것이 부르짖고,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였으며, 도살의 날에 하듯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5:3-6.

그러나 급속히 이루어져 가는 시대의 징조들이 주는 경고를 누가 읽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인상을 주는가? 그들의 태도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노아 시대 사람들의 태도에서 보였던 것 이상은 없다. 세상 일과 쾌락에 몰두하던 홍수 이전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데려가기까지 알지 못하였다."(마태복음 24:39)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보내신 경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급히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히 성취되었다. 머지않아 예언들에서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교회에 드리는 증언 제9권, 11쪽.